



루드비히 폰그라츠 Ludwig Pongratz

교육의 상품화 –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제품설명서

생산과정을 거친 모든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품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자명한 일이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극도로 모순적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것도 – 가끔은 흥분하면서, 또 가끔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 현대사회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며, 종종 체제의 변두리에서 다시 등장하곤 한다.

상품생산의 모순은 예술과 같은 사회 주변영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술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심지어는 투자대상으로 급고 속 깊숙이 감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시에 예술의 원래의 가치가 시장논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예술이 원래 목적하는 바, 즉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무언가 ‘다른 것’을 주장하며, 특히 경제적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술이 상품으로 축소되는 현실과 모순된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예술과 상업은 서로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과 상업의 결합 속에서 체제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교육의 상품화가 초래하는 모순들을 충분히 의식하게 되었다. 교육이 국가의 지휘 하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개별 민간사업자들 간의 경쟁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대다수 구성원, 즉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교육시킨다는 보편교육의 이념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논리가 교육분야에까지 침투한 이래로 교육이 지닌 기존의 의미, 즉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성숙한 사회에서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경제화라는 지배적 요구와 대치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독일 정부에서 의식적이고 단호하게 추진해 온 평생교육 장치의 구축 및 확장은, 뒤돌아보건대 지극히 모순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교육제앙으로서의 자격취득 열풍

자격취득 열풍을 불러왔던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방향전환은 시장 옹호자들이 그전부터 주장해 온 모든 유혹과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교육분야를 계속 기능화시키면 개인의 자유와 경제가 손에 손을 잡고 사이좋게 번영할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제 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설새없는 평생학습의 대가

로 장군의 지휘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직업적 성공, 경력, 권력과 명성 등이 보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엔 분명 체제의 강요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업사회를 위한 ‘견습생’ 역할이 부여되며, 사회의 경제적·기술적 토대가 빨리 변화될수록 그 반대급부로 지속적인 학습 또한 더욱 강요되고 있다.

자격취득 열풍과 더불어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상품화의 압력을 받았다. 평생교육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통째로 뒤엎는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즉, ‘전 세대에 걸친 교육’이 ‘일생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교육을 통한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개념은 신화적인 느낌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자질의 교육’과 같은 새로운 주문까지 나오게 했다.

핵심자질 교육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업무분야의 스펙트럼을 이른바 ‘마스터 키’로 한꺼번에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동화 속의 용감한 어린 재단사처럼 여러 가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핵심자질 교육은 특정내용을 담을 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이 개념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핵심자질 교육은 ‘나열적이고 누적적인 교육(사실·도구·방법에 관한 지식)을 도구적 교육(실용적 지식, 노하우 지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신적 능력은 사실과 지식의 저장장치가 아니라 지능적인 반응을 위한 중앙조정실로 사용되어야 한다.’¹⁾

저장장치, 중앙조정실, 지능적인 반응 등과 같은 개념만 보아도

1) D. Mertens, 1994, p.40.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이 말이 기계적 인간의 출현을 아무 거리낌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도로 유연한 산업로봇으로서의 인간,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항상 새로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하드웨어로서의 인간이야말로 자격취득 열풍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은 논리일 것이다. 설사없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처하려면 물론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는 핵심자질을 갖추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락해 버린 기초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²⁾ 지속적인 교육이나 평생학습은 몇 개 안 되는 가장 좋은 사회적 지위를 생취하려는 ‘과당경쟁’—미국에서는 ‘생쥐들의 경주’라 불린다—에 참가하기 위한 입장권이다.

이러한 ‘생쥐들의 경주’가 계속해서 역동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상품화 논리, 기술의 변화 속도,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 대한 강요 때문이다. 자격취득 열풍으로 인해 희생되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패배자로서 방출되는 실업자들뿐만이 아니다. 계몽주의적 교육개념에 기초한 귀중한 전통 역시 희생된다. 과거의 교육이 주체적 교육, 정확히 말하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둘러싼 삶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현재의 자격취득 개념은 이러한 맥락을 분명하게 해체하는 것이다. 한번 취득한 자격은 ‘점점 더 빨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열대 과일처럼 빨리 상하는 상품이 되고 만다.’³⁾ 즉, 자격취득 개념 안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그에게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만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2) 앞의 책, p.42.

3) K. A. Geißler, 1992, p.67.

교육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강제적 의무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육 담당자들도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시작부터 이미 구조조정의 패배자 쪽에 서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압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승리자 쪽에 선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평생교육의 강제적 메커니즘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앞으로 배워야 할 것 등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평생 동안의 학생 신분, 평생 동안 지속되는 중간단계를 의미한다. ‘확고한 자리, 즉 자신의 이력에 안정된 고향을 찾아주는 일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학습을 찾아 떠도는 유목민으로 살아갈 뿐이며, 나쁜 경우에는 하루 일거리를 찾기에 급급한 공사판 막일꾼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다. 삶 전체가 삶을 위한 준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⁴⁾

교양시민에서 스스로를 상품화하는 세일즈맨으로

평생교육 시장의 구조적 강요에 따라 특정한 행동양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강요에 대한 복종을, 스스로를 상품화하는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내적 태도와 심리적 성향이 그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시장의 익명적 권위에 복종하는 데 불과하지만, 주관적으로 개인은 마치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태도인 것처럼 생각한다. 프롬은 이에 상응하는 심리적 성향을 마케팅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했

4) K. A. Geißler, 1991, p.732.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다.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의 경제화가 가속되면서 마케팅 지향성은 20세기 후반 산업사회의 근본적 특징이 되었다. 대개 마케팅적 성향은 다른 심리적 성향들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연출된 현실의 선호나 나르시시적 망상으로의 도피와 더불어 생명이 없는 물적 대상에 대한 매료—즉, 프롬이 죽음애호증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역시 이러한 성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이 책의 서문 참조)

20세기 초반에는 권위적 성향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성향의 주요 특징은 외부세계의 대상이나 사람들과 자신을 결합시키고 이들을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결합은 마케팅에 의해 규정된 마케팅 법칙의 강요 속에서 점차 해체된다. 현대적이고 유연한 기업경영에서는 가부장도 신성한 보스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경제적 필요에 따라 처분되기 때문이다. 점차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하는 유연하고 익명적인 ‘기능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때 각 기능들 간의 심층적인 감정적 결속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마케팅 지향적 성격의 자아체험 안에서 일종의 무책임한 관계방식으로 나타난다. 프롬에 따르면 마케팅적 성향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특별하고 지속적인 관계방식으로는 발전되지 않으며, 단지 태도의 변화 가능성만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뿐’⁵⁾이라는 점이다. 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성의 특징으로서, 유연성, 교환 가능성, 그리고 적응력의 선호와 잘 부합된다.

체험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중심가치는 스스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장에서도 바로 이와 관련된 상품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5) E. Fromm, 1947a, GA II, p.53.

사람들은 누구나 성적증명서나 세미나 수수료뿐만 아니라 화술, 자신감 있는 태도, 튀는 아이디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가능한 높은 가격에 팔고자 노력한다. 일간지에 실리는 수많은 구인/구직광고를 통해 우리는 자기 상품화의 압력이 엄청난 자기연출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을 팔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실력 있는 사람, 최고의 인간,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등으로 소개해야 한다.’⁶⁾

이 경우, 자신을 쉽게 상품화할 수 있는 자질들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물화시켜 다양하게 상품화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의 정체성은 더욱 빠르게 해체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의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며, 그 결과 우울증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에 빠져들고 만다. ‘마케팅 지향적 성격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 깊은 결속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사람에게 진실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는 마케팅 지향적 성격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성격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그 사람 자신도 그런 자신을 멀리한다.’⁷⁾ 이러한 내적 공허함은 시장에 나오는 물건을 의인화시키고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예로 광고의 팽창을 들 수 있다. 광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품의 암시력을 높이려고 한다. ‘시장활동의 주체가 욕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시장활동 그 자체라면, 즉 시장에서 성공, 상품판매 등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시장에서 판매되

6) R. Funk, 1997, p.10.

7) E. Fromm, 1976a, GA II, p.375.



는 상품들이 생명을 부여받고 사람의 이름을 갖고 인간의 특성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⁸⁾

인간의 사물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물의 인간화는 마케팅 지향성의 특징인데, 이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점점 더 지배적이 되어가는 또 다른 현상, 즉 생명이 있는 것보다 사물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성향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프롬은 이것을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사랑, 즉 죽음애호증이라고 불렀다. 마케팅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죽음애호증 역시 자기존재의 심각한 결핍, 즉 자신의 고유한 힘에 의해 살아가고 그 힘을 세상에서 생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결핍된 데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생명이 없고 사물적이며 기계적인 것에 매료되는 현상은 우격다짐 격인 시장논리가 강요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프롬은 근대를 포괄적으로 특징짓는 기본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향, 즉 생명체를 수량화시키고 계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 속에서 죽음애호증적 성향을 이해하는 열쇠를 발견했다. 살아 있는 자연을 해부 가능한 대상으로, 인간을 사물로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가산성可算性에 대한 매료 이외에도 기계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매료 역시 비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가능케 해준다. 프롬에게 있어서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 특징이 아니다. 이는 ‘삶이 상실된 결과’⁹⁾이며, 참을 수 없는 무력감이나 인간 고립 및 사물화에서 파생된 현상이다. 인간관계가 허수아비 같은 사물적 형태를 띠게 되면 인간은 단순한 기능적 존재로, 피와 살을 지닌 로봇으로 전락한다. 죽음애호증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오늘날의 기계적 인간들이다. 프롬은

8) R. Funk, 1997, p.15.

9) E. Fromm, 1941a, GA I, p.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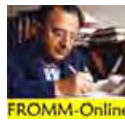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완전히 기계화된, 생명이 없는 세계는 사자死者와 몰락의 세계의 또 다른 형식일 뿐이라는 결론’¹⁰⁾을 내렸다.

프롬이 그려낸 성향들은 관념적인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성향들이 실제 사회적 현실에서는 항상 특수하게 혼합되어 나타난다. 마케팅 성향과 죽음애호증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은 종종 나르시시적 성향과 결합된다. 이들은 상호보완하며 자체적인 증후군을 형성한다. 자아를 점점 더 상실해 감으로써 약해진 자아체험은 환상 속에서 만들어 낸 과대망상을 통해 보상된다. 나르시시적 성향의 사람이 타인에게 친근함과 결속감을 보이는 경우는 타인이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반영하고 보완해 줄 때뿐이다. 나르시시적 성향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은폐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따라서 나르시시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과 욕구를 세분화시켜 파악해서 자신의 거울로 삼는 데 뛰어나다. 다시 말해, 성공적이고 유연하며 변화에 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행동하는, 이른바 ‘스스로를 판매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뿌리깊은 불신과 보호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공생적 욕구로 가득한 극히 불안정한 자아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례 : 이데올로기로서의 마케팅

위에서 언급한 성향들은 사회나 교육분야의 상품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난다. 이런 성향들은 현재 수많은 교육기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물론, 학습과정의 전문화와 효율화 과정을 비롯

10) E. Fromm, 1973a, GA VII, p.319.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한 개별 세미나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성향들이 추구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향들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마케팅적 성향의 구축 자체가 중요한 곳, 즉 세일즈 트레이닝과 마케팅 세미나이다.

이런 행사들에서는 마케팅적 성향을 이데올로기로서 판매하는데, 그 방식의 솔직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소,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병리학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마케팅 지향적 성격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서 자신의 비합리성과 정신분열적 기본구조를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마케팅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게르트 게르켄 Gerd Gerken이 저술한 《공생적 세일즈와 자아—세일즈맨을 낳은 전략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세일즈를 그만 두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이유》¹¹⁾라는 거창한 제목의 책이다.

마케팅 전략가인 게르켄의 제안을 대충 요약해 보면 판매행위 전체를 가공의 현실로 연출하라는 것이다. 게르켄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했던 마케팅적·죽음애호적·나르시시적 성향에 따라 ‘나’의 기능이 뚜렷이 쇠퇴하는 현상을 충실히 반영한 데 불과하다. 이제 인간은 진정한 자아체험이 상실되고 현실 통제력이 현격히 저하되었으며, 그에 따라 외부세계에 개인적 요구를 전달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자기존재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하여 인간은 현실을 상상 속의 구조물로 대체해 버린다. 즉, 모순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나의 강점, 현실감각, 실망과 좌절의 순화,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대부분 필요치 않게 되는 가공의 현실을 연출함으로써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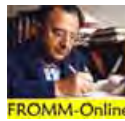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해결하는 것이다.

마케팅 예언자 게르켄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점점 더 불가능한 미래를 갈망한다. 사람들은 상품에서 새로운 종류의 미래를 보고자 한다. “내가 이 제품을 사면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질문에 충실하게 말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대부분 유리처럼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성격에 충실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달라졌다. 적어도 40세 미만의 젊은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말이다. 이들은 사회학자들이 “잡동사니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자아에 여러 상이한 인성들을 부여하며, 단 하나의 궁극적인 자아상을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즐긴다.’¹²⁾

정체성 상실을 이렇게 미화시킨 후에 게르켄은 자신이 (공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공생적 세일즈’라 부르는 마케팅 전략을 세일즈맨들에게 추천했다. 게르켄은 모든 세일즈맨에게 고객과의 판매 상담시에 고객이 스스로 선택한 연출된 미래를 발견하도록 해주고, 이때 상품이 개인의 소망을 비추는 스크린이 되도록 만들라고 충고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고전적 의미의 공생적 관계가 아니라 상품 소비자들의 무관계성을 연장시킬 뿐인 사이버 관계이며, 단지 이것을 ‘공생적 세일즈’라는 딱지 아래 감추고 있을 뿐이다. 게르켄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방법에 어떤 심리적 수법이 사용되는지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공생적 세일즈맨은 일차적으로 정신을 판다. 현대 소비자들의 잡동사니 정체성을 위한 실현 가능함직한 미래의 정신 말이다. 따라서 공생적 세일즈맨은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

11) G. Gerken, 1994.

12) 앞의 책, p.43.



다만 고객의 작동사니 정체성이 풍부해지도록 부추기는 미래의 정신을 가지고 고객과 ‘함께’ 물건을 만들어 낼 뿐이다.’¹³⁾ 이를 통해서 정체성이 풍부해지기는커녕 잘게 조각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게르켄은 투명성(완전히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자아개념), 향유(고객은 하나의 자아 안에 여러 가지 인성을 담고서 게임을 즐긴다), 그리고 게임(고객의 인성이 다양할수록 판매상담은 더욱 유희적이 된다) 등에 관해 떠벌리면서 실제로 이러한 타입의 인성이 보통 ‘정신분열증’이라는 항목으로 다루어진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게 한다. 이런 면에서 그 저서는 사회 상태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다. 아도르노가 말했듯이 정신분열은 ‘주체에 대한 역사철학적 진실’¹⁴⁾이기에 말이다.

또한 그 저서에는 인간의 자아상실을 마치 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혀 새로운 해방의 단어가 등장한다. 마침내 ‘고객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최종소비자로 취급하는 것’¹⁵⁾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드디어 ‘어떤 원칙이나 도그마 또는 궁극적인 진리 따위를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게’¹⁶⁾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합리성에 대한 옹호는 미래주의적인 태도를 띠고 있는 듯하지만 예전의 파시즘 신화보다 나올 게 전혀 없다. 물론 이번 경우에는 권력에 동조하는 비합리성이 아무런 위장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일즈맨에게 요구되는 360도의 인성은 일종의 1회용 정신이다. 개인적인 신념의 표본을 가상의 것에 대한 믿음 쪽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좁은 세계상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세일즈맨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훈련은 세일즈맨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¹⁷⁾ 이러한 형태의 세뇌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세상과의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현명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보장까지 주어진다. 자아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팽창된 자아’가 눈짓한다. 이는 ‘훨씬 더 관용적이고 훨씬 더 무의도적인 자아개념이다. 즉,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자아이다. 세상과 이렇게 가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이나 자신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과 정신적 공간에서 즉흥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¹⁸⁾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은 결국 기존의 개념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다시 말해 이런 사이버 관계는 진정한 협력관계처럼 꾸며지는 반면, 오히려 다른 모든 관계들이 ‘사이비 이해’¹⁹⁾로 전락하는 것이다. 더 많이 판매하려는 분명한 의도(상품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는 결국 현명한 무의도無意圖로 둔갑한다. 세일즈맨은 ‘무의도를 매력적인 매개체로 활용해 세일즈를 해야 한다.’²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 모든 사기극은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 ‘해방된 세일즈맨은 인간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²¹⁾

13) 같은 곳.

14) Th. W. Adorno, 1975, p.277.

15) G. Gerken 1994, p.46.

16) 앞의 책,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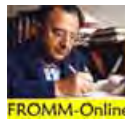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17) 앞의 책, p.46.

18) 앞의 책, p.47.

19) 앞의 책, p.47.

20) 앞의 책, p.46.

21) 앞의 책, p.47.



등근 시각형 : 기술대체 기술로서의 평생교육

‘판매하기를 중단하면 더 많이 판매한다’는 세일즈 트레이너 게르켄의 구호는 평생교육의 모범적인 교수법 논의에서도 종종 인용된다. 여기에서는 ‘넓은 전략의 감옥에서 세일즈맨을 해방하라’는 구호 대신에 ‘주입식 교수법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해방하라’고 외친다. ‘학습 시스템’에 자발적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확보되어야 더 많이,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르켄이 자신의 책에서 부수적으로만 다루었던 구성주의²²⁾의 개념은 현재 진행되는 평생교육에 관한 이론적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비간섭적 교수법, 가능성 실현의 교수법, 또는 실용주의적 중용²³⁾ 등의 단어의 배후에는 교육과정을 대하는 포스트포드주의²⁴⁾식 스타일이 엮여있다. 즉, 특정 생산분야에서 테일러²⁵⁾식 방법이 궁극적으로 그 효력을 다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분업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결합과 생산적 재통합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성향의 평생교육에서는 위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비록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강제적 구조를 무력화시키진 못한다 할지라도, 자발적 조직 모델 내지 자율적 완성 틀 안

에서 이론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이 경우에도 효율성의 증가 여부가 문제지만, 외관상으로는 20세기 전반의 개혁교육학에서 사용한 해방적 개념들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등뒤에서는 여전히 기존체제의 명령들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대신에, 드디어 엄격한 주입식 교육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었노라고 서둘러 선언해 버리고 만다.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학습한다는 것은 학습과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자율적 완성 시스템’으로서의 자아가 학습과정의 중심에 서며, 즉각적이고 생산적이 되고, 극단적인 명령체계에는 더 이상 복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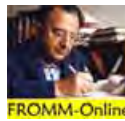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구성주의에서는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허구라고 본다. 왜냐하면 ‘학습하는 시스템’이란 자주적이고 능동적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폐쇄되어 있으므로, 그 행동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학습 시스템’을 특징짓는 것은 직선적인 인과성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순환성이다. 따라서 분명한 인과관계 대신에 학습행위의 계획 불가능성과 우연성이 보다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학습행위의 계획 불가능성이라는 테제These는 구성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평생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그 테제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학습행위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평생교육, 또는 교육 일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또다시 아주 실제적인 모순을 초래한다. 앞서 제시한 구성주의 교육의 전제 하에서는 구성주의 교수법의 주창자들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만 자신들

22) 구성주의 :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안에서 지식이 창출된다고 보는 교육학적 입장. 즉, 개인이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23) R. Arnold, H. Siebert 공저, 1995.

24) Post-Fordism : 미국의 실업가 헨리 포드의 경영이념이었던 포드주의가 한계에 이르자,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모색된 것을 총괄하여 포스트포드주의라 부른다.

25) Frederick W. Taylor : 1856~1915. 미국의 경영학자로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관리체계를 만들어 경영혁신에 도움을 주었다.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의 교수법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최신 심리기법으로 무장한 개혁교육학적 합의와 결합한 절충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시스템 이론가인 루만Luhmann은 마치 ‘둥근 사각형’ 같은 이런 모순에 ‘기술대체 기술’²⁶⁾이라는 용어로 맞서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용어 역시 그 자체에 담긴 비합리적 요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기술대체 기술 이론에서 말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그룹 안에서 어떤 반향을 느낄 때, 어떤 진동이 발생했을 때, 상호적인 학습 관심이 먼저 생겨났을 때’야 비로소 ‘학습하는 시스템들’ 간의 상호결합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학습 시스템들’이 학습과정을—잘 하든 못 하든 간에—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모순의 문제는 시스템 이론 차원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자율적 학습형태들도 모두 사회적 선별과정을 거쳐 선택된 것들이다. 체계적인 작업과 자율적 동기부여, 즉 시민적 노동윤리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학습방식들만이 채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완성되는 자율적 학습 시스템의 배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회적 유형이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세우는 자율성에는 시민적 노동윤리가 다각적으로 내포된 교육방식이 전제로 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교육방식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그런 사회적 유형 하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규범을 준수하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법론을 만들며,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에 대해 연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²⁸⁾

26) N. Luhmann, K. E. Schorr 공저, 1979.

27) R. Arnold, H. Siebert 공저, 1995, p.161.

28) R. Boenicke, 1998, p.8.

요즘 시행되는 자율적인 학습 모델들은 나름대로 선별작업을 거쳐 시행되므로 사회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자유 아닌 자유 아래에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장되어 버린다. 또한 더 이상 자기규율의 욕구가 없는 사람들, 요구되는 일을 의욕적으로 끝마치지 못하는 사람들, 한계와 종속과 학습거부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수동적 태도를 취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반응만 할 뿐인 사람들도 역시 매장되긴 마찬가지이다.’²⁹⁾ ‘문화적 자산’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먼저 이런 선별작업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자율적 조직력과 자아실현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수사修辭가 내뿜는 거센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대책 없이 들로 쪼개진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

‘기술대체 기술’ 프로그램은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학습 시스템의 내적 작동에만 관심을 둔다. 이 용어에 따르면 학습은 서로 결합된 선별과정들의 연속에 불과하다. 이런 선별을 통해 시스템 내부와 외부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지속된다. 루만의 말을 빌리자면 학습과정들 간의 결합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복합성과 선별의 연관관계이다. 이때 선별은 아직 ‘주체가 없는 하나의 과정, 즉 차별성을 확정짓는 작업’으로 이해된다.³⁰⁾ 그리고 복합성은 ‘개념적으로 파악하기에 너무 복잡한’ 어떤 ‘주체적인 상태’를 말한다.³¹⁾ 간단히 말해서, 복합성이 먼저 있고 선별이 뒤따르는 것이고,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루만은 ‘사유는 시스템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29) 앞의 책, p.8.

30) N. Luhmann, 1988, p.57.

31) 앞의 책, p.45 이하.



다.³²⁾ 시스템 진화의 지평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원칙적 비판이라는 형태로 이런 지평을 넘어서고자 하는 모든 사변적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를 조망하는 이론에서는 자율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시스템 이론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이론에서는, ‘구 유럽’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온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하고자 시도되었던 자유·주체·교양과 같은 단어를 단호히 거부하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주체적 상태라는 개념은 이른바 ‘기술대체 기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루만은 교육학 분야에서 ‘집중기술’이란 개념을 즐겨 쓴다. 집중기술이란 ‘반응대상을 가지고 작업할 때 결정을 내리는 기술을 말한다. 이때 사람들은 유형화된 경험이나 통상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이 기술을 익히게 된다.’³³⁾ 따라서 교육학적 기술은 소위 ‘조건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조건적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그럴싸한 착상 정도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어떤 조건적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석적 방식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변적 능력, 즉 반성적 주체의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체란 이미 오래 전에 자취를 감춘 개념이지만, 교육과정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찰은 성인교육 분야

에서 벌어진 시스템 이론적 혹은 구성주의적 사유에 대한 논쟁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었는데, 그 논쟁은 앞서 제시했었던, 소위 ‘자격취득 열풍’을 둘러싼 논의의 일부였다.

시스템의 균열 : 교육의 월권

자격취득 열풍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새로운 생산기술의 복합성으로 인해 단순한 기능 충족만으로는 기능성조차 갖출 수 없다는 일견 모순적인 통찰을 통해서였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능에 맞는 전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과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는,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부분적 능력들 간의 유연하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통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추가기능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앞서 자격취득 열풍이 없애버리고자 했던 것들을 다시 끌어들이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을 전인적 교양으로 끌어올리는, 단순 기능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지평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이는 또한 주체성의 실현이나 자아확립³⁴⁾과도 불가분 결합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 효율적 교육을 위한 모든 시도를 위협하는 약점이 있다. 이런 시도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주체는 순수하게 기능화되고, 또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뒤로 물

32) 앞의 책, p.30.

33) N. Luhmann, K. E. Schorr, 1979, p.358.

34) 이는 경제적 맥락에서는 물론 일반적 작업 능력으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W. Bender, 1991, p.22.)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러나 있는 주체개념일 것이다. 주체의 공간을 기능적으로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직업과 관련된 평생교육의 개념적 틀 안에서 다듬어진 프로젝트 한 가지가 실행되었다. 여기서는 예전의 개혁교육학의 여러 모델이 다시 고려되었다. 이 과거 모델들에 잠복해 있었던 비합리적 요소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자율적 주체 양성을 목표로 한 모든 교육학적 요소들, 즉 프로젝트 학습, 상황학습, 복합적 학습방식 등은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주체의 직업적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떠올랐다.’³⁵⁾ 비록 그 요소들은 비합리적이지만, 실현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수단과 포괄적인 성향을 갖춘 보편적인 방식들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인 통합과 통제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주체 문제 소리 없이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새로운 통합의 방식은 주체를 압박하는 모순적인 자아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활동을 위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 물론 너무 거대해져 버리는 위험도 피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자아초월의 요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평생교육은 기능화와 그에 대한 비판, 자율과 타율, 통합과 그에 대한 거부 사이의 모순적 구조에서 그 원동력을 얻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피교육자의 자율성, 즉 피교육자의 성찰능력·비판능력·생산성·활력 등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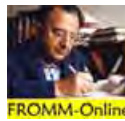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프롬은 계획적인 시장전략의 지평을 뛰어넘는 비판적 교육이라는 목표를 생명애호적 개념, 즉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

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다. 삶에 대한 사랑은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지배적이었던 심리적 기본이념에 대한 추상적 반대개념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시스템이 지닌 명백한 자기모순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요구라 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사랑은 여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지닌 현실 및 타인의 현실과 접촉하고, 이것을 시장에 나온 상품들처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³⁶⁾

성공적인 교육은 사회의 효율성 법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공적인 교육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어떠한 객관주의적 개념과도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제대로 인식될 수 있다. 교육에서는 삶의 기술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약삭빠른 자기 상품화를 위한 시도들은 결코 그런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은 인간이 항상 자기 자신의 고유능력을 통해서, 즉 자발성과 거부능력과 성찰력과 감수성 등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특허권이나 기발한 훈련법, 학습전략도 필요하지 않다. 비판적 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모순 속에서도 자아를 만들어 가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삶의 기술로서의 교육은,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상품생산 사회에 저항한다. 교육은 사회적 모순들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사회의 지평을 새로이 넓혀나가는 능동적 힘을 발휘한다. 이것은 교육이 지닌 선각자적 성격이다. 이로써 교육은 인간을 운명의 경계 위에 올려놓게 된다.

35) R. Röder, 1989, p.186.

36) E. Fromm, 1991e, GA XI, p.249.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교육은 현재 속의 미래이다. 교육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³⁷⁾

■ Ludwig, A. Pongratz : 1948년 출생.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한 이후 학교, 교사연수, 성인교육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1976년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일반 교육학으로 교수 자격을 취득하고, 1992년부터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에서 일반교육학 및 성인교육 담당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육철학, 비판적 이론, 교육학의 이론사, 성인교육이며, 수많은 관련 저서가 있다.

{ 참고문헌 }

Adorno, Th. W., 1975: *Negative Dialektik*, Frankfurt am Main: Suhrkamp.
 Arnold, R., und Siebert, H., 1995: *Konstruktivistische Erwachsenenbildung*, Hohengehren: Schneider.
 Bender, W., 1991: *Subjekt und Erkenntnis*, Weinheim.
 Boenicke, R., 1998: 'Autopoiesis im Klassenraum? Bigründungsprobleme von Konzepten selbstgesteuerten Lernens'; Habilitationsvortrag, Darmstadt.
 Fromm, E.: siehe die Nachweise am Ende des Bandes.
 Funk, R., 1997: *Die Marketing-Orientierung*, Tübingen (Vortragsmanuskript).
 Geißler, K. A., 1991: 'Qualifikations-Burger und Bildungspizza-lebenslänglich?', in: *Die Mitbestimmung*.
 Geißler, K. A., 1992: 'Bildung als lebenslänglicher Titelkampf', in:

Projektgruppe Jugend 2000 (Hg.): *Jugend 2000. Trends, Analysen, Perspektiven*, Bielefeld.
 Geißler, K. A., und Heid, H., 1987: 'Die Opfer der Qualifizierungsoffensive', in: Geißler, K. A. et al. (Hg.): *Opfer der Qualifizierungsoffensive*, Evangelische Akademie Tutzing.
 Gerken, G., 1994: 'Symbiotic Selling und das Ego-Verkäufer befreien vom Gefängnis der alten Strategien-Warum man mehr verkauft, wenn man aufhört zu verkaufen', in: *Mensch und Büro*, Nr. 5, 1994.
 Heydorn, H.-J., 1972: *Zu einer Neufassung des Bildungsbegriffs*, Frankfurt am Main.
 Luhmann, N., 1988: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Luhmann, N., und Schorr, K. E., 1979: 'Das Technologiedefizit der Erziehung und die Pädagogik', in: *Zeitschrift für Pädagogik* Nr. 3, 1979.
 Mertens, D., 1974: 'Schlüsselqualifikationen',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Röder, R., 1989: 'Funktionalisierung von Bildung im Bereich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schen Lernens', in: W. Gieseke, E. Meueler und E. Nuissel (Hg.): *Zentrifugale und zentripetale Kräfte in der Disziplin Erwachsenenbildung*, Mainz.

37) H. J. Heydorn, 1972, p.148.